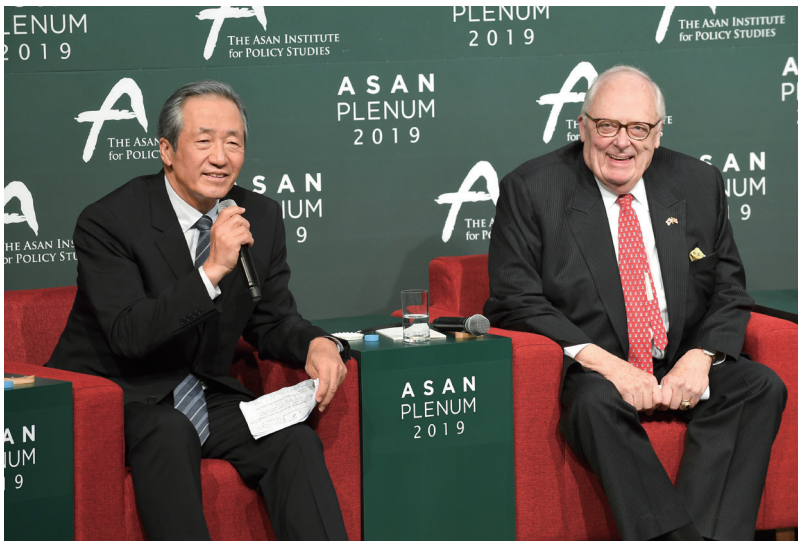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면 성공할 수 있다”

글 유인종 편집부 / 사진 송은지 핀스튜디오



정주영 아산재단 설립자의 회고록 영문 번역서 출판기념회에서 정몽준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는 모습. 오른쪽은 에드윈 풀너 헤리티지재단 설립자다.

정주영 아산재단 설립자의 회고록 <이 땅에 태어나서>의 영문 번역서 <Born of This Land: My Life Story>가 출간됐다. 1997년 한글 초판이 나온 지 22년 만에 발간된 이번 번역서를 기념하기 위해 아산재단과 아산정책연구원은 지난 4월 23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아버님을 뵙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출판기념회에는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에드윈 풀너(Edwin Peulner) 헤리티지재단 설립자, 캐런 하우스(Karen House) 전 월스트리트저널 편집인, 폴 월포위츠(Paul Wolfowitz) 전 세계은행 총재, 이흥구 전 국무총리 등 설립자와 남다른 인연을 맺은 인사들이 참석해 서평(書評)과 설립자에 대한 회고담을 나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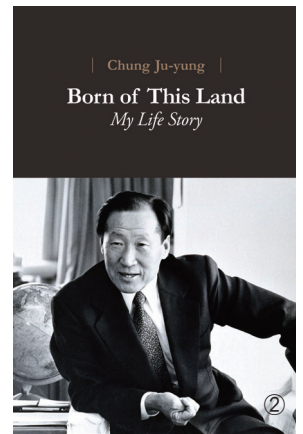
정몽준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영문 번역서를 출간한 이유는 아버님이 얼마나 특별한 분이셨는지를 보이려는 것이 아니다. 가장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도 정말 근면하고 성실하게 산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정몽준 이사장은 이어 “아버님께서는 다음 세대에 남길 본인의 유산은 바로 일과, 순수성에 대한 믿음이 라고 말씀하셨다. 아버님의 회고록을 영문 번역서로 다시 읽으면서 아버님을 다시 뵙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다”고 말했다.

싱크탱크의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헤리티지재단을 설립한 에드윈 풀너는 설립자를 “특별한 삶을 산, 굉장히 역동적이고 성공적이며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준 기업인”으로 기억했다. 현대자동차 포니(Pony)의

미국 출시를 기념하기 위한 만찬 자리에서 설립자와 만났던 때를 회고한 그는 “이제 현대자동차는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말과 함께 최근 자신이 구매한 현대차의 제네시스 G90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폴리처상 수상자인 캐런 하우스 전 월스트리트저널 편집인은 1992년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일 때 당시 대선에 출마한 설립자를 만난 일화를 소개한 뒤 “이렇게 영어로 번역된 책이 없었다면 설립자의 정신과 지혜를 직접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이번 번역서를 통해 설립자의 기업가 정신을 제대로 접했다고 말했다. 특히 설립자가 일본을 제치고 서울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 챕터를 꼭 읽어볼 것을 권했다.

미국의 대외정책과 안보 전문가로서 국방부 차관을 역임한



①폴 월포위츠 전 세계은행 총재(오른쪽 두 번째)가 정주영 설립자를 회고하는 모습. 왼쪽부터 정몽준 이사장, 에드윈 풀너, 캐런 하우스 전 월스트리트저널 편집인, 폴 월포위츠, 이홍구 전 국무총리. ②<이 땅에 태어나서>의 영문 번역서 표지.

폴 월포위츠 전 세계은행 총재는 “지금까지 읽어본 기업인들의 책과는 달리 굉장히 훌륭하고 극적인 재미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설립자는 과감하게 행동하면서 리스크를 수용하는 분이었다. 용기를 갖춘 성공한 기업인이었다”고 회고했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설립자는 한국의 20세기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일들을 이룩한 굉장히 특별한 분이었다”면서 “설립자에게는 상식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강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 때문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설립자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이 땅에 태어나서>는 설립자가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사업을 일으킨 뒤 세계적인 기업으로 일구어낸 과정과 함께 1988년 서울올림픽, 남북한 경협, 아산재단 설립 등 우리 현대사의 중요한 고비에서 맡았던 역할을 직접 기록한 자서전이다.

총 9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수많은 좌절과 도전에 직면했던 기업인으로서 격동의 한국 현대사 속에서 느끼고 경험한 일들을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다.

정몽준 이사장은 이번 영문 번역서의 서문을 직접 작성하며 이 책에 대한 애정을 보였다. 다음은 서문의 주요 내용이다.

‘아버님의 자서전 <이 땅에 태어나서>는 1997년에 출판됐다. 영어 번역서 출간이 지연된 것은 아버님께서 본인의 생각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신 특유의 분위기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제 부족하나마 원저에 충실한 번역이 이루어져 기쁘다. 아버님은 이 나라를 일으킨신 분들 중의 한 분이셨다. 아버님은 경부고속도로 같은 기간산업과 소양강댐 등의

주요 시설을 건설하셨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게 성공한 회사를 일으키셨고, 수많은 학교와 병원 그리고 국내 최대의 사회복지재단도 설립하셨다. 서울올림픽을 유치하셨고,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에 해빙기를 가져오기도 하셨다.

나에게 있어서 아버님은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고 오늘의 내가 있게끔 해주신 분이시다. 타고난 건강을 주셨고, 부지런함과 검약 정신과 포기를 모르는 끈기와 집념을, 그리고 인간의 도리를 실천으로 가르쳐주셔서 오늘의 나를 이도록 해주신, 내 가장 큰 스승이시다. 아버님의 자서전을 다시 읽으면서 아버님이 내 옆에 계심을 느낀다. 아버님의 해안과 긍정적인 사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자 하시는 의지, 이 모든 것이 그렇다. 무엇보다도 아버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들로써 아버님이 애타게 그렇다. 아버님의 영전에 이 책을 바친다.’

영문 번역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만큼 당시 우리나라의 시대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수의 사진 자료 및 각주가 추가됐고, 책의 뒷부분에는 설립자의 연보를 세계사 연표와 함께 수록해 세계사의 흐름과 비교하도록 했다. 설립자의 회고록을 번역해서 출간하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 베트남에서는 한국에서 2년 정도 일했던 베트남 청년이 번역한 비공식 번역본이 50만 부 이상 팔린 적도 있다.

설립자는 ‘이 땅의 밝고 새로운 희망을 위하여, 젊은이들 그리고 시련에 빠진 오늘의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나의 살아온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는 뜻을 밝히며 회고록을 끝맺었다. 이번 영문 번역서를 통해 설립자의 희망 메시지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젊은이와 시련을 겪는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